

**블로그 히어로즈의 부록 김호 대표와의 인터뷰와 관련,  
일부 수정 및 보충 설명 드립니다.**

**2008년 7월 9일**

아래의 사항은 2008년 7월 한국에서 출간한 블로그 히어로즈(마이클 A. 벅크스 지음, 최윤석 옮김, 에이콘 출판사)의 부록에 담긴 한국의 블로거 인터뷰 중, 저(더랩에이치의 김호)와 관련된 부분 중,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의 입장에서 수정 혹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출판사 측으로 보내졌으며, 출판사와 인터뷰어(한국경제신문사 임원기 기자님)의 판단에 따라, 추후 다시 출판할 경우, 일부 수정되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hoh.kim@thelabh.com](mailto:hoh.kim@thelabh.com)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랩에이치([www.THELABh.com](http://www.THELABh.com)) 김 호 드림.

책 속의 맥락(문장)	인터뷰이(interviewee) 입장에서 수정 혹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Hoh kim's Lab	Hoh Kim's Lab으로 K도 대문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the lab H	이는 THE LAB h가 맞습니다. 제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정식 명칭은 (주) 김호더래버토리이며, 보통은 줄여서 더랩에이치라고 합니다. 영어로 쓸 때는 h만을 소문자로 사용합니다. 김호더래버토리와 더랩에이치는 우리나라 상표법에 의거, 서비스표로 정식 등록되어있습니다.
"개인 미디어랩사를 차렸다."	미디어랩이라는 표현이 제 입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인터뷰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새로운 미디어 현상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일정부분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더랩에이치는 CEO나 임원 대상의 위기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코칭 회사입니다.
"내가 갑자기 공학을 전공하기로 한 것 역시 블로그와 관련이 있다."	아마도 제가 공대(KAIST)에 들어가게 된 것을 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공대인 KAIST에서 대학원생으로서 공부(박사과정)를 하고 있으며, 전공은 문화기술학(Culture Technology)입니다. 공학이라기 보다는 통섭(consilience)을 기반으로 공학, 예술,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책 속의 맥락(문장)	인터뷰이(interviewee) 입장에서 수정 혹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때 교수님이 문화기술연구소를 제의했다."	문화기술연구소라는 것은 KAIST내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화기술대학원이며, 교수님께서 제의를 했다가 보다는 문화기술대학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며, 하나의 가능성으로 고려해보라고 이야기해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슬래쉬 Slash>라는 책이 인기를 끄는 것을 봤다"	슬래쉬는 책의 이름이 아니라, 책 속에 나오는 슬래쉬 효과(최근, 한 사람이 다양한 커리어를 동시에 가져가는 현상을 지칭한 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책의 원제목은 One person/Multiple careers: How "the slash effect" can work for you (by Marci Alboher)입니다.
"원래 사람이 만날 때, 너무 많이 알고 만나면 친해지기 힘들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는 친해지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각자의 진솔한 스토리를 통해 서로 마음(mind)을 열면 친해지는데, 바로 web 2.0의 블로그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이러한 관계 형성에 아주 적합한 도구라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홈페이지는 단순한 사실이나 지식의 나열로, 방문자와는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